

복시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임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내가 내 자녀에게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승복시켰는가? 아버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누가복음 6장 4절 말씀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는 나의 기준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말씀의 묵상 및 기도에 진념했다.

그전에는 내가 우리 애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로서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기준은 물질이었다. 내가 그렇게 자랐고 나의 부모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으니 나의 손 뿌리는 물질문제가 주는 고통과 쾌락의 토양 속에 고착되어 있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사랑을 과연 나는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전할만한가에 깊이 반성했다.

과연 내가 틈만 나면 용돈을 주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랑의 표현을 해왔던가. 나의 가장 값진 것이 아닌 가장 편하고 싼 것을 내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던가. 애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빠와의 시간을 나는 별로 준 적이 없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줄 만큼 과연 내가 내 애들을 사랑했는가? 길게 대답해야 할 질문만 받아도 귀찮아서 암암리에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무심코 애들에게 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애들이 아빠를 피하고 거리를 두게 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애들을 키웠던 것이다.

아버지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거쳐 나는 주님께서 그의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배웠다. 어느덧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어휘도 폭력과 증오와 한탄으로부 터 온화와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고 있었음을 스스로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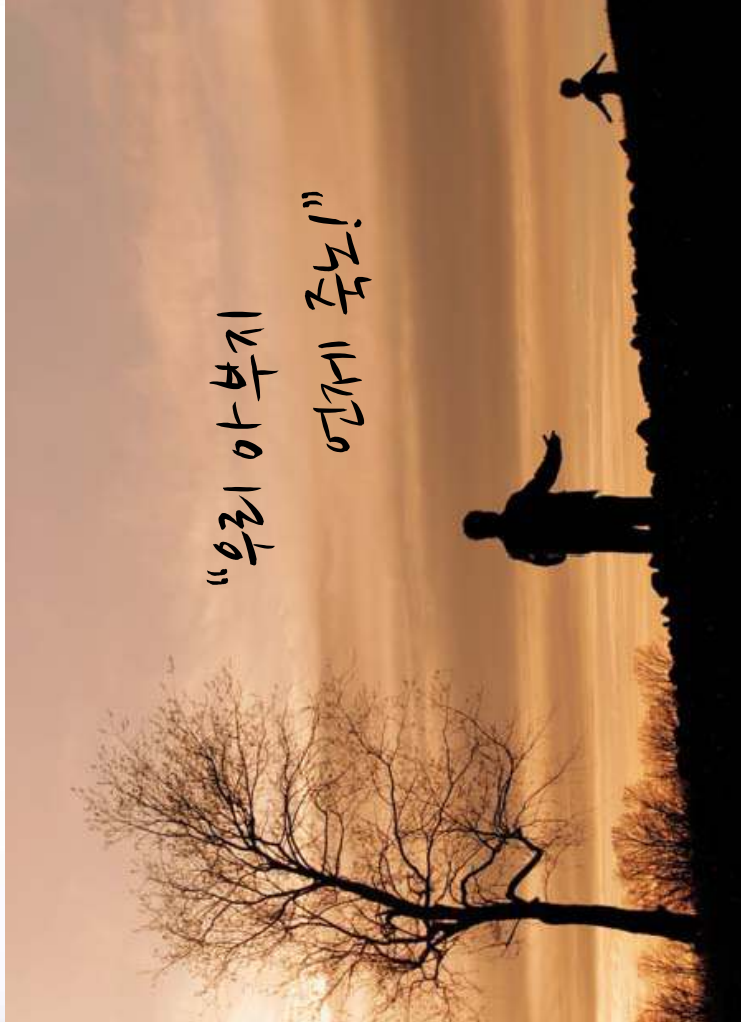
아버지학교 후 나의 생활은 점차 가족을 중요시하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고 미국에 있는 큰애는 이부 말할 수 없는 방황과 고통을 겪고 점차 이러한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점차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부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애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저 이번 중간시험에서 A 받았어요.”

“저 이번 학기 A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겠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 드려. 아빠가 불쌍해.”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정말 아버지학교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은혜의 학교라 생각된다. 6



“우리 아버지
언제 죽죠!”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도에 태어났다. 다섯 살 되던 해 6·25전쟁이 나자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타셨다. 몇 년 후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귀국해 헤어졌던 우리 가족은 대구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반가움은 잠시였다. 불행하게도 나는 ‘아부지’라고 다정스럽게 불리려고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기대와 달리 아버지는 (그 당시 아버지 대부분이 그러하듯)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교우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불쌍한 무학자였다. 일 본 오사카에서 직조공장의 기사로서 배워온 기술 덕분에 직장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섬유산업이 번성했던 대구시 빈두리 지역에서 근근이 일에 풀릴 하는 지난 속에 살았다. 문제는 아버지의 술버릇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돌아올 때 가끔 술을 드시고 오셨다. 술을 드시고 온 날에는 어머니와 가족을 향해 갖은 욕설을 하셨다. 밤상이 날아가고 가구가 부서지는 일들이 있었다.



김영배 한국영자
총협회 상임부회장,
조지아대학교 경제
학 박사



당시 사춘기였던 나는 몹시 불안했고 아버지가 티없이 미웠다. 그래서 아예 학교에 늦게까지 있거나, 동네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주무실 때를 기다려 집에 들어갈 때가 잦았다. 짐으로 가다가 아버지가 술 취해서 고향치기나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돌려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혼자 걸으면서 이렇게 되뇌곤 했다.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

술이 깨고 난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없는 평상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졌다.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했던 일차 무식자로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큰소리 한번 쳐보지도 못해 만만한 우리 가족을 상대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러저럭 나의 사춘기를 잘 넘기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던 나의 십 대를 그나마 잘 견뎌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성인이 되어 아내와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게 되었는데, 이들이 대학입시에 한번이 실패하여 삼수를 하게 된 일이 있었다. 아들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대충 대충하는 것 같아 잦은 잔소리와 손찌검을 할 때도 있었다. 그 나이 때는 정말 가난하고 불안한 환경에서도 어렵게 공부하여 오늘날의 내가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어떤 때는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이들의 컴퓨터를 보게 되었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어떻게 토해 하나 안 틀리고 내가 했던 말 하고 똑같은가? 나조차도 기가 막혔다. 아내는 너무나 놀라 도대체 아들에게 어떻게 했기에 저런 말을 써 놓았냐고 다그치면서 나를 얼마나 나무라는지! 그 후 아내의 강압에 못 이겨 ‘아버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것마저도 저절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기에...

5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아버지학교는, 첫째 주에 나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다. 지난 1984년 말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내가 십 대 때 했던 말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에 대해 고백하게 되었다. “그 때는 정말 미웠어요. 그러나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내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와 합장을 해 드렸으니 다시는 두 분이 다투지 말고 사이 좋게 쉬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다.

그다음 주에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삼수하는 아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못해서 너에게 그만 손찌감까지 했구나.”라고 쓰고, 나의 아더웠던 십 대 때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썼다. 또, 어릴 때부터 커가는 모습을 기억하며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도 함께 썼다. 아버지학교에서 는 이 편지를 아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이들의 집 주소로 말이다. 물론, 내가 사는 집 주소이기도 하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웬수(?)같은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받고서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자기 방문을 박차고 달려나와 나를 끌어안고 “아빠! 잘못했어!”라고 울부짖었다. 아들과 나는 정말 한참이나 얼싸안고 평평 울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나는 베프(베스트프렌드)가 되었다. 매일 도시락 2개를 싸들고 다니는 아들에게 “나는 최고야! 우리 집 마들보야!”라고 격려하고 안수기도까지 해주었다. 그 후 아들은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았다. 3개월 후 치러진 수능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당시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했구나!하는 실수를 깨우치고 후회를 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생각된다. 다시 한번 외치고 싶다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



조용근 세무사, 원천합계법인 이사장, 전(내)전자방국세정장 한국세무사회 회장, 2006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나눔봉사부문 수상.